

하늘사랑

2019. June 6

www.kma.go.kr Vol. 456

포커스 뉴스
달라지는 태풍정보서비스
더 쉽게,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열린마당
기후변화는 라디오를 타고

날씨 + Story
야구장 날씨,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기상청

2019 KCMIE
Korea Climate and Meteorological Industry Exhibition 2019

기상기후산업박람회

2019. 9. 25(수) - 27(금)
KINTEX 제1전시장



주 최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주 관 KMI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KINTEX 에너지경제

동시개최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9 국제도로교통박람회,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박람회 홈페이지

행사특징
- 기상청 주최의 국내 최대 규모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 박람회
- 기상기업의 실질적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 비즈니스의 장
- 기상·기후산업 동향 파악 및 기상기후의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유사산업 박람회 동시개최

부대행사
- 기상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해양기상 전문가 워크숍, 기상R&D 혁신기술 세미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등

참관객 사전등록 방법
- 홈페이지 접속(meteoexhi.kr) → 온라인 사전등록

전시품목
- 기상장비, 서비스 융합 등 기상기업, 유관기업 / 지진 관측 및 경보, 대응 관련 기업 / 미세먼지 측정 및 경보 관련 기업 / 기상기후 유관기관 및 날씨경영우수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및 청년 스타트업 등

참가기업 신청(부스할인) 문의

조기할인	부스 당 30만원 할인 • 할인조건 : 기한 내 참가신청서 제출 • 적용기간 : 2019. 5. 31.(금)
재참가할인	부스 당 20만원 할인 • 할인조건 : 2016~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사무국
T. 031-995-8746, 8209 / E. meteo@kintex.com

하늘사랑

2019 June Vol. 456 2019년 6월호(통권 456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9년 6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임덕빈 **편집기획** 오철규 김혜정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포커스 뉴스
달라지는 태풍정보서비스
더 쉽게,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 02
100년 관측소,
기상관측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다 · 04

세계날씨지도
하루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몽골' · 06

KMA About

열린마당
기상한류 스포츠 외교로 가치를 더하다 · 08
드디어 기상대학을 졸업하다 · 10
기상청으로 체험학습 오세요 · 12
나를 변화 시키는 일주일의 법칙! · 14
기후변화는 라디오를 타고 · 16
당신(당구의 신)의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 18

KMA 날씨 +

날씨 + Story 야구장 날씨,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 20
날씨 + 현장 날씨제보 서포터즈
제주 매력에 빠지다 · 22
날씨 + 취미 나의 영원한 취미, 낚시! · 24
날씨 + 에세이 대구는 이렇게 '더워서 좋은 도시'로
변모해간다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오늘 당신의 날씨 · 30
포토 에세이 · 32

June


04


08


23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달라지는 태풍정보서비스
더 쉽게,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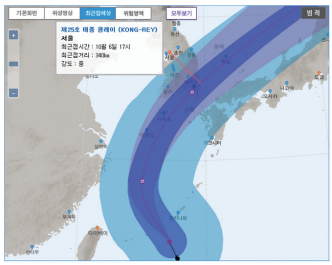
국가태풍센터

태풍 피해는 태풍을 잘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풍 정보를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개선하여 그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태풍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태풍상세정보'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나의 관심지역 서비스

현재 활동 중인 태풍이 사용자의 관심지역에 언제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인지?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상 강도를 GIS기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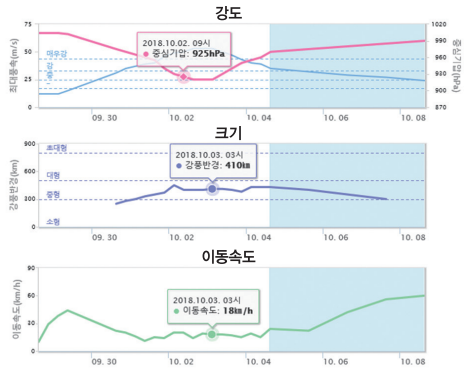


1 최근접예상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시 최근접예상 표출 (시간, 거리, 강도)

2 그래픽으로 한눈에!

태풍의 강도·크기·이동속도에 대한 관측과 예보 값을 그래픽으로 표출하여 태풍의 발달과 쇠퇴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3 태풍이 되기 전부터 연속 정보 제공

태풍 이전 단계부터 별도로 제공되었던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가 통합되어 연속성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공백 없는 태풍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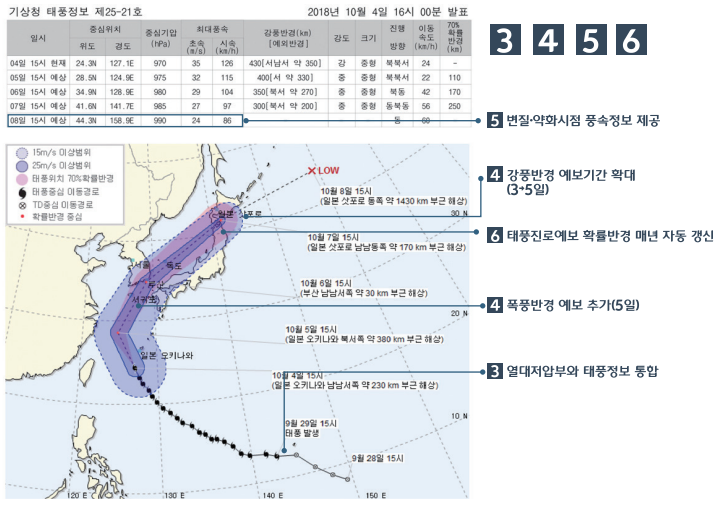
강풍반경과 폭풍반경 정보를 5일 예보기간까지 확대하여 예보 전 기간 동안 공백 없는 태풍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태풍 종료 후에도 위험 정보 제공

태풍정보 종료시점에도 최대풍속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태풍이 온대저기압 변질 또는 열대저기압 약화 후에도 위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태풍진로예보 확률반경 매년 자동 갱신

최근 3년 예보정확도 수준을 반영하여 태풍진로 예보의 불확실성을 매년 갱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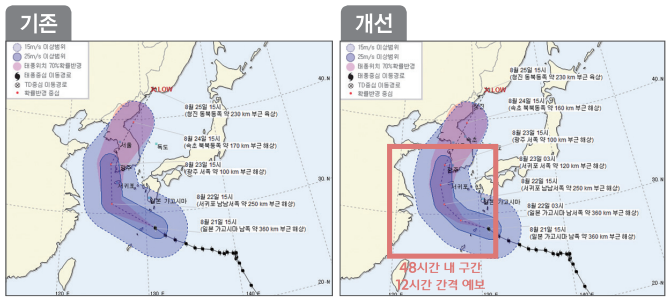


2019년, 태풍 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태풍 진로 구간 상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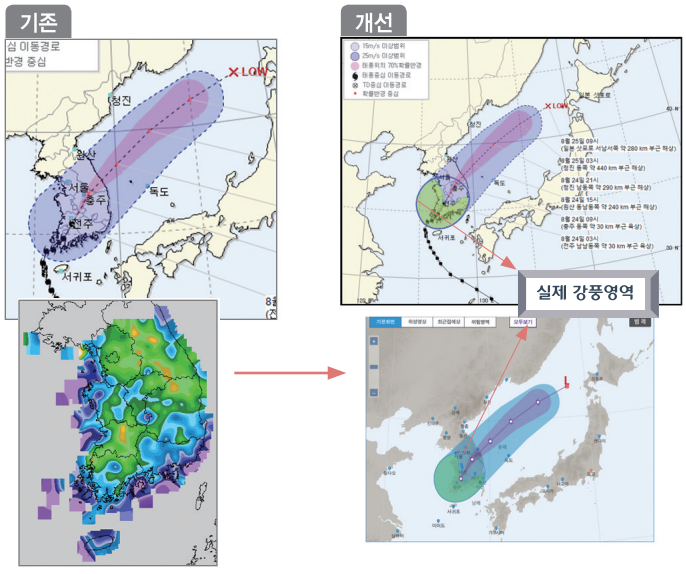
그동안 최대 5일 예보를 24시간 간격으로 수행했으나, 태풍 발생 시점부터 48시간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하게 태풍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태풍의 중심이 경계구역(북위25°북쪽, 동경 135°서쪽) 또는 비상구역(북위 30°북쪽, 동경 132°서쪽)에 위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12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발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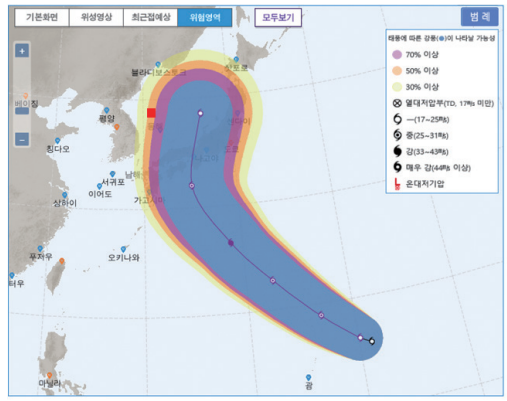
2 태풍 강풍반경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실제 강풍영역 표출

54㎞/h(15m/s)의 강풍반경을 타원형으로 표현했을 경우, 태풍이 상륙했을 때 지형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비정형적 강풍영역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풍반경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실제 강풍영역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태풍 위험영역 추가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보를 고려하여 태풍에 따른 강풍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태풍 위험영역' 정보에 표출하였습니다.



3

4 태풍 강도 '약'의 명칭을 삭제

태풍의 강도등급을 개선하였습니다. 태풍 강도 '약'의 명칭을 삭제하여 '약한 태풍'이라는 태풍 강도 표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인식을 개선하여 태풍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5 태풍 관련 정보 검색체계 단일화

분산되어 있던 태풍특보, 태풍정보, 태풍속보 등 태풍 관련 정보들을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처럼 더 쉽게,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개선된 태풍정보서비스 운영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년 관측소,
기상관측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다

부산지방기상청

지난 4월 23일,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시 중구청의 「대청큰마루터 기상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기상관측소인 부산기상관측소에 「대청큰마루터 기상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부산기상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기상분야의 유네스코 문화재인 '100년 관측소'이며, 현재까지도 부산의 대표 관측지점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어 기상관측업무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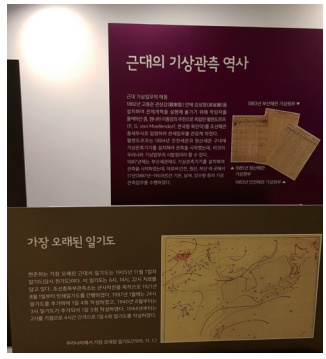
부산기상관측소,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 문화재인 '100년 관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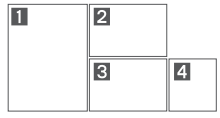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 문화재인 '100년 관측소'가 우리나라에 2개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부산과 서울입니다. 특히, 부산기상관측소는 우리나라에서 근대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에 설치되었으며, 1934년에는 보수동에서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청동 복병산 자락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기상관측소입니다.











1 2 부산기상관측소
3 관측장소
4 기상기록전시관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51호 문화재로 지정

관측소 건물의 외관은 항구도시인 부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으로 고안되었으며, 수평적 가로줄을 강조하여 르네상스적 기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수직창의 여닫이 처리와 천장 몰딩 문양의 거푸집처리는 근대기에 도입된 표현주의 건축 양식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51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상전시관 조성으로 기상과학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다!

우리나라 기상역사의 현장이자 건물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부산기상관측소! 부산지방기상청은 시민이 보다 친숙하고 생생하게 기상과학을 접하고 우리나라 근대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산시 중구청과 손잡고 기상전시관을 조성하여 지난 4월 23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전시관은 부산기상관측소의 역사적이고 건축사적인 의미를 살려 2층에 날씨배움터, 기상기록전시관, 부산기상관측소 역사관이 있으며, 3층에는 기상체험전시관,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기상전망대로 용두산공원과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날씨와 계절 관련 속담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 협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부산시 중구청, 그 이후는 부산지방기상청 주관으로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올해 전시관 관람은 「40계단 및 역사체험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화~금요일은 일 2회, 토요일은 1회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진행되므로 관람을 원하면 부산시 중구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화 예약하면 됩니다.

기상관측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다!

우리나라 근대기상업무의 시작이자 현재도 부산의 대표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부산기상관측소! 이번 기상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기상관측의 중요성과 가치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재조명되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이 미래의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6 7
8 9

5기상전시관 개관식
6기상전망대 7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산
8부산기상관측소 역사관 9기획전시실



하루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몽골'

Mongolia 몽골

광활한 대지와 대자연의 신비함이 가득한 몽골. 몽골 하면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을 떠올리겠지만 몽골은 생각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나라입니다. 하루에 4계절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나라인 몽골. 1년 중 몽골의 기후가 온화한 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 만약 몽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몽골, 어디에 있을까?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아시아 내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인구는 3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몽골은 사막이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전체 국토의 80%가 목축지입니다.

한국에서 몽골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행기로 약 3시간 40분 소요되며, 시차는 1시간 정도 느립니다. 4월부터 10월 1일 전후의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되어 이 시기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몽골 기후와 날씨

몽골의 기후는 건성 냉대기후이며, 뚜렷한 대륙성 기후로 계절 구분이 명확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고 기온차가 심하며, 기온변화가 잦은 것이 특징입니다. 몽골은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무려 30℃ 이상 난다고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도 매우 커 여름에도 겉옷을 꼭 챙겨야 하는 곳입니다.

몽골의 사계절

봄, 가을

몽골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봄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몽골의 봄은 변덕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봄철 황사가 심하고 가끔 눈보라가 치기도 하며 돌풍이 불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가을(9월~10월)의 평균 기온 7℃ 정도이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몽골의 관광지



테를지 국립공원

테를지 국립공원에서는 몽골의 탁트인 하늘과 바위와 숲으로 이루어진 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 체험, 독수리 체험, 승마 트레킹 코스가 있어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테를지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이 있으며, 수흐바타르 광장을 중심으로 사원, 자연사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와 식당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념품을 구입과 몽골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울란바토르를 꼼꼼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비사막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인 고비사막은 붉은 절벽 바양작, 협곡 지대 욜링암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낙타를 직접 타보고, 샌드보드를 타보는 이색적인 체험이 인기입니다. 특히,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감상하며 잠들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으니 몽골을 여행한다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여름

몽골의 여름은 짧고 덥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구름 없이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날이 많습니다. 여름 평균기온은 17~23℃이며, 강수량의 약 75%가 7~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끔 소나기성 우박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겨울

몽골의 겨울은 춥고 맑으며, 한겨울 낮 기온은 영하 20℃, 밤 기온은 영하 40℃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몽골의 겨울은 건조하여 거의 눈이 내리지 않지만, 눈이 오면 녹지 않아 겨우내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설빙이 목초지를 덮는 경우도 생겨서 방목을 할 수 없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선정될 정도입니다.

기상한류 스포츠 외교로 가치를 더하다
베트남수문기상청과 친선 축구경기 개최



기상청을 떠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어간다. 퇴직 후 나는 강원도 속초 초야에 움집을 틀고 산과 바다 자연과 더불어 수렵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했던 '기상청'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기상청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베트남 원정 친선축구경기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수락했다. 축구경기를 생각하니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렜다. 특히, 축구를 좋아했던 추억을 공유한 선·후배들과 함께 한다는 기쁨을 알기에 더욱 기다려졌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여느 직장과는 달리 우리는 몇 시간 뒤, 내일, 3일, 1주일, 한 달, 3개월 뒤를 고민하며 살았다. 이런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축구동호회! 어느새 너무나도 보고 싶던 선·후배들과 다 같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병남
전직기상인(사진 우측)

베트남수문기상청과의 스포츠 외교

우리나라는 경제적·정치적 외교와 더불어 스포츠를 이용한 외교도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 기상청도 이제는 선진 기상을 배우던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선진 기상기술을 보급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스포츠를 이용한 교류가 가능할 정도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기상청 축구동호회의 최초 해외 친선경기 상대는 '베트남수문기상청!' 두 나라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상기술 협력을 통한 신뢰를 왔으며, 그 바탕으로 친선 경기로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었다. 경기는 5월 11일, 하노이에 있는 ACB 축구경기장에서 열렸다.




뉴스 • 관련도순 • 최신순

TAINGUYEN & MÔI TRƯỜNG

Giao lưu bóng đá hữu nghị giữa Tổng cục KTTV Việt Nam và Tổng cục Khí tượng Hàn Quốc

베트남 신문 인터넷 기사로 실린 친선경기



드디어 경기 시작!

경기 시작 전, 베트남수문기상청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양 팀 펜던트 교환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이 한국 기상청과의 친선경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친선 축구경기는 말 그대로 접전이었다. 베트남의 젊은 패기와 20번이 넘는 선수 교체를 통해 전·후반 내내 힘과 스피드로 우리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20년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 동호회의 조직력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베트남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들은 번번이 우리의 오프사이트 트랩에 걸려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단 한 명의 교체 선수만으로 전·후반 경기를 소화한 우리의 노련한 경기 운영은 우리와 상대 팀의 골대를 서로 오가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의 무게

결과는 0:0 무승부, 이 결과를 통해 양 팀의 선수들이 흘린 땀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국 기상청장은 내년 서울에서 양자 기상협력 시 리턴매치를 약속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차례다. 이번 경기는 기상청이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협력 등 경제외교에서 승부에 상관없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까지 외교영역을 확장한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스포츠 분야를 활용한 국제협력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기였다.



115년 만에 이루어진 국제 스포츠 외교

기상청의 근대 기상업무 시작 후 1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제 스포츠 외교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감회가 남달랐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기상청 축구동호회와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내 안에 열정과 내 몸에 힘이 지속하는 한 언제든 부름에 응답할 것이며, 기상인으로서 제2의 삶을 하루하루 뜻깊게 살아갈 것이다.

드디어 기상대학을 졸업하다

다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무려 10여 년 만에, 그것도 기상대학에! 기상 분야 비전공자인 내가 기상청에 입사하면서 '대기과학' 분야의 전공이 절실해졌다. 다행히도 학점은행제로 대기과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나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기상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드디어 대기과학 전공자가 되었다.





박혜진
항공기상청 김해공항기상대

대기과학 전공 학점은행제 시작

처음 학점은행제에 대해 접한 것은 기상청 합격 후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서였다. 기상청에는 비전공자인 직원을 위해서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도 기회가 되면 대기과학전공 학위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때마침 항공기상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항공기상청은 2016년부터 항공기상예보관 자격요건이 국제 표준으로 시행되어,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는 대기과학전공이 필수 자격이 되었다. 항공기상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2016년 가을학기부터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만만하게 생각했던 기상대학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하려면, 4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기상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6~45학점을 인정해주는데, 나는 기상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20학점을 인정받았다. 추가로 28학점을 들으면 되었는데 한 과목당 3학점이었기 때문에 총 10과목을 들으면 대기과학 전공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한 학기에 4과목까지 신청 가능했으므로 첫 학기에 4과목을 신청했다. 학위를 빨리 따버리자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이버강의와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수업에 참석해야 했고, 중간중간 과제도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다. 첫 학기에 고생을 하고서야 한 학기에 4과목을 듣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학기부터는 욕심내지 말자는 생각으로 1~2과목씩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다. 첫 학기보다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월하게 학점을 딸 수 있었다.





마침내 기상대학을 졸업하다

매 학기마다 대기관측, 대기역학, 미기상학 등 여러 과목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고, 수업을 신청할 때면 이번엔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하며 골라 듣는 재미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처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면서 오랜만에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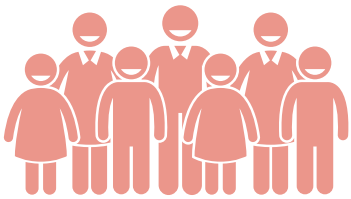
2016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대기과학전공 수업이 2018년 가을학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나는 기상대학을 졸업했다.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은 사무실 선배님들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강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다.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들이 있어서 더 힘이 되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참여했던 기상대학이 끝나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벌써 끝났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기상청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 과정을 고민하는 직원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상청으로 체험학습 오세요



"날씨예보가 제 꿈이었어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기상청으로 견학을 온 한 학생이 한 말이다. 인솔하는 나를 따라 로비로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눈망울로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언젠가 처음 이곳을 들어서던 나의 모습도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김지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기상의 날, 기상청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2019년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한 행사가 있었다. 올해 기상의 날 행사는 작년과 다르게 내부 행사 중에 '주민과 함께하는 기상청 체험학습'이라는 세션이 마련되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기상청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체험의 확장판 격이었다. 그때까지는 그저 21일에 견학을 신청한 아이들이 주인공이겠거니 생각했을 뿐, 체험학습 진행을 내가 함께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직접 체험하고 알아가는 기상·기후 과학 체험

기존에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일기도 그리기, 기상캐스터 체험, 관측 장소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상의 날은 조금 특별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해시계 모형 만들기와 기상캐스터와 함께하는 캐스터 체험, 토네이도 발생기, 온실가스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동형 날씨체험차량을 이용한 기상·기후 과학체험을 구성했다.

우리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분들을 초청했다. 복지관 담당자에게 준비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상황별 에티켓'을 전달받았다.

기상청으로 체험학습을 떠나요

행사 당일, 복지관 선생님들을 포함해 총 53명이 초청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우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3개의 프로그램을 팀별 순환 체험으로 진행했다. 1조는 해시계 만들기, 2조는 기상캐스터 체험, 3조는 날씨체험차량 순서로 30분씩 체험 후 다음 프로그램으로 순환하는 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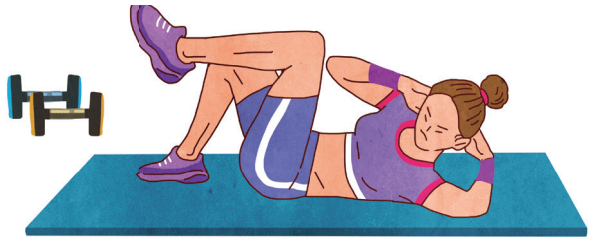
내가 인솔한 1조는 기상청 체험학습 담당 선생님의 주도하에 해시계 만들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계획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만들기 모형의 조각을 떼는 것부터 난관이 시작되었다. 모형 조각을 떼고 접는 와중에 조각이 찢어지기도 하고 접는 부분이 많아서 조립을 하기도 전에 체험 시간의 반이 흘러가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조는 이미 체험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 하에 해시계 모형을 일부 조립해 준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대략 30개의 모형을 조립하는 것이었다. 나는 해시계 만들기 키트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직원들에게 키트를 나눠드리며 외쳤다. "도와주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말 감사하게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도와주셨고, 다른 조를 인솔하신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주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한바탕 뜀박질을 끝내고 나니 비로소 우리 1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스스로 해시계를 만들었다는 기쁨의 표정, 교육용 트럭에 올라 신나게 탄소잡기 게임을 하는 모습, 쾌활하게 기상캐스터 체험을 이끌어주시는 기상캐스터들과 의자에 올라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시는 주임님, 다른 조를 인솔하는 직원들까지. 나 혼자 뜀박질한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체험학습이었기에 행복했고 보람찼다.

나를 변화 시키는 일주일의 법칙!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사소했다. 대전청에서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체검사와 체력 측정을 해주는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력 측정을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체력이 평균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단계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생애 첫 운동의 시작

충격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집 근처 헬스장으로 향했다. 3개월 이상을 등록한 회원에게 2번의 PT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말에 줌바와 헬스 3개월을 등록했다. 인바디 검사와 2번의 PT를 받고 정확한 나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근육은 없고 체지방량은 많은 불균형 상태. 기초체력도 없어서 평균이 되려면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간단한 동작과 헬스장 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줌바를 하기 전후로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러닝머신을 30분씩 매일 하라는 트레이너 선생님의 명을 받으며, 그렇게 나의 생애 첫 운동은 시작되었다.



김보영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꾸준히 매일매일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후 나의 목표를 "단 10분을 하더라도 일단 매일 헬스장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다.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좋지 않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의 폐를 위협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헬스장으로 향했다.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출발하는 나를 발견한다.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았던 일주일의 규칙이 어느덧 3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어느새 운동은 나에게 습관이 되어있었다.



구분	측정결과		체력인증기준			
	4회차	3회차	1등급	2등급	3등급	연령평균
근력(kg)	28.1 (85%)	25.7 (75%)	24.89	22.58	20.28	26.53
근지구력(회)	54 (95%)	41 (90%)	31	25	19	24.69
심폐지구력	42 (95%)	25 (70%)	25	20	15	19.92
유연성(cm)	6.7 (15%)	-0.2 (0%)	18.9	14.5	10.1	13.58
민첩성(초)	12.87 (70%)	12.52 (75%)	13	13.9		13.98
순발력(cm)	150 (60%)	144 (50%)	155	144		143.18
BMI	20.5	20.5	18kg/㎡ 초과 25kg/㎡ 미만			
체지방률(%)	28	31.9	16% 초과 32% 미만			

힘들었던 한 달이 지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운동에 적합하지 않았던 나는 처음 한 달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한 번도 운동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몸도 느끼는지 러닝머신 30분을 걷기 조차 쉽지 않았다. 일단 30분을 빠르게 걷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어지러웠고, 한 시간에 1000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줌바는 역시 10분마다 물을 마시고 쉬어야 할 만큼 고강도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마음먹었던 처음의 결심이 혹시나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매일매일 꾸준히 30분의 러닝머신과 주 3회의 줌바를 이어나갔다.

운동이 주는 작은 변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석달이 지났다. 이젠 쉽게 피로해지거나 지치는 현상도 사라졌다. 운동하면서 겪었던 많은 변화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7년간 고쳐지지 않았던 불면증이 해소된 것이었고, 내장지방이 연소되면서 그동안 달고 살았던 구내염의 횟수도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체지방은 몸의 균형을 깨고 몸속에 염증을 만들어 혈관을 막거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발이 자주 저렸던 것도, 피곤할 때마다 달고 살았던 구내염도 체지방에 의한 염증 질환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작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체지방률은 고작 4%에 불과하지만 그 4%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1년 후를 상상해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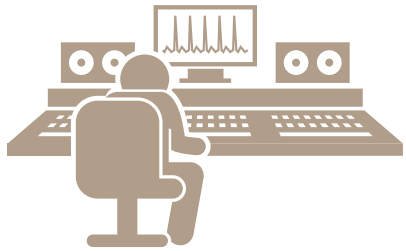
체지방이 줄어든 만큼 근육량은 늘어나 오히려 체중은 약간 더 늘어났다. 신체적인 수치로 보자면 반만 성공한 셈이지만 내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꾸준히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본다면 완벽한 성공에 더 가깝다.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올바른 변화 전략만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도 충분히 가능해질 뿐 아니라 꽤 쉽고 단순해진다.

처음엔 운동을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일단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난 후 모든 것이 쉬워졌다.

자율성이 큰 만큼 강제성이 없기에 헬스장에 꾸준히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한 달간만 학원에 등록했다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보자! 그러면 분명 1~2년도 거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1년 후의 변화된 나를 상상하며 오늘도 난 헬스장으로 출발한다.

기후변화는 라디오를 타고





"「기후시그널 8.5」 라디오 캠페인에 참여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난 3월, 담당 선생님께서 라디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희망했던 많은 학생 중에서 선발되어, MBC 충북, 청주기상지청 그리고 세광고등학교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라디오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준
세광고등학교 2학년

기후변화, 신선한 충격이 되어 돌아오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이전까지 기후변화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새롭고도 신선한 충격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과일이 열리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여름이면 폭염 일수가 증가하여 주의하라는 뉴스 보도는 메시지가 줄줄 외워질 정도로 자주 등장했지만 솔직히 기후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심각한 것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펭귄들이 힘들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후변화, 불평에서 슬픔으로

그러다 이번 라디오 캠페인 문구 공모를 위해 청주기상지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라디오에 방송될 캠페인 문구를 직접 작성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볼 수 있었고,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매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지금의 현실도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작년 여름 폭염일수가 늘어난 것에 '왜 이렇게 더운 거야.'라며 불평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작게만 여겼던 이상기후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앞으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올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사진으로 봤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더욱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1분 안에 전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캠페인 문구 작성에 더욱 고심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지구가 힘들어하는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작성한 저의 글이 우수작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노력이 헛되지 않아 너무 기뻤습니다. 게다가 라디오에 제 목소리로 직접 작성한 짧지만 의미 있는 문구가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게 너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 문구를 어디서든 들고 다니며 연습하고 녹음했던 제 목소리가 지난 4월, 라디오 전파를 타고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1분 정도의 짧은 캠페인이지만 많은 사람이 듣고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귀한 경험, 의미 있는 활동

기후변화 라디오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MBC충북 방송국에 가서 라디오 녹음을 직접 한다는 경험도 참 귀했지만, 이번 '기후 시그널 8.5' 캠페인은 건강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오늘도 결심합니다.

당신(당구의 신)의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나는 다둥이 아빠다. 주위에선 아이가 넷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움과 존경을 표현해 주곤 한다. 하지만 세 아들과 막내딸의 육아는 만만치 않기에, 아빠로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 무렵, 다시 만나게 된 당구는 나에게 위안을 주었고, 그렇게 나는 당구의 신이 되었다.

당구, 그 시작은?

당구는 기원전 400년 무렵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14~16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금의 당구와 비슷한 경기가 성행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목이다. 신체 활동, 두뇌 싸움, 컨디션 조절 등에 많은 이변이 있는 게임으로 재미도 있고 운동 효과까지 있어,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세대들이 맞이한 당구의 시작은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자욱한 담배 연기, 거친 남자들의 대화가 뒤섞인 당구장의 환경이 어른들에게는 탐탁지 않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구의 세계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종종 필요했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의 감시를 요리조리 피해야 했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들킨 날에는 가차 없는 등짝 스매싱을 감당해 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구장이란 친구들과 소통하며 끈끈한 우정의 다지는 화합의 장이며, 도전과 경쟁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 현장이었다. 부단한 연습과 노력은 나를 에버리지 '250'의 실력자로 만들었고, 게다가 요행까지 더해진 날엔 누구든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다.



이윤수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당구 청년, 아빠가 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진천에 처음 왔을 때는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했었다. 다행히 가족들은 잘 적응했으며, 환경 좋은 진천에 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까지 얻었으니 그 행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아빠를 넘어서는 우월한 운동 신경을 가진 둘째 아들은 진천군 축구 대표로 활약하던 중 서울







에 있는 중학교에서 선발되어, '제2의 손흥민'을 꿈꾸고 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대견해 하면서, 한때 당구에 몰두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예전 같은 실력을 뽐내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당구를 즐기던 터라 마침 기상청에서 개최한다는 당구대회 소식이 더욱더 반갑게 들렸다.

기상청장배 당구 대회 출전

지난 3월에 열린 기상청장배 당구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이 경기 규칙이었다. 당구 4구 경기에 참여한 16명의 선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인전 경기를 해나갔으며, 초면인 직원들과 서먹하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좋은 성과를 얻어 결승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상대 선수와의 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특기인 모아치기를 통해 단숨에 9점을 내면서 우승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다.

당구 신의 노하우!

자, 당구 신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그 비법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원천이기에 더 나은 남편,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취미생활까지 이어져 나를 '당구의 신'으로 거듭나게 했다. 기상청장님과의 우승 기념사진을 보며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신', 나는'당신'이다.

야구장 날씨,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2018년 프로야구장을 찾은 관중 수는 807만 3742명. 8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야구는 기상 상황에 따라 경기 운영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프로야구의 경기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해성
국민참여기자단

축구는 수중전도 꿀잼, 야구는?

우천 시 야구 경기 취소 기준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골문을 향해 슛을 날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축구는 강우라는 기상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야구는 어떨까요? 사실 야구도 무작정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경기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우선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 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등의 기상특보(경보 이상)가 발표되었을 시, 기상청으로 확인한 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면 경기를 도중에 중단하여 30분 동안 기상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경기를 재개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야구장에 에어컨은 있나요?

폭염 시 야구경기 취소 기준

무더위가 시작되어 에어컨 앞을 벗어나기 힘든 6~8월은 한창 프로야구의 열기가 달아올라 있을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3시간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나 관중들 모두 장시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비가 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여름 폭염에 관한 규정도 존재한다는 사실! 폭염의 기상특보(경보 이상)가 발령되었을 시 경기운영위원 또는 심판원들은 경기의 사전 취소, 중단,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폭 염

폭염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원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던 우천 취소와는 다르게 폭염에 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2군 경기를 제외한 1군 경기에서는 폭염에 의한 경기 취소가 결정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맞이하여 각 구단과 야구장에서는 폭염에 지칠 관중과 선수들을 위해 매년 무더위를 식혀줄 각종 냉방시설을 비롯해 '물대포 발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가면 마스크도 주나요?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야구경기 취소 기준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도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선수와 관중들을 위협하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자, 2019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BO는 작년까지 모호했던 미세먼지에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6일 프로야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개의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를 이유로 동시에 취소되면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KBO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 75만 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야구장에 찾아오시는 관중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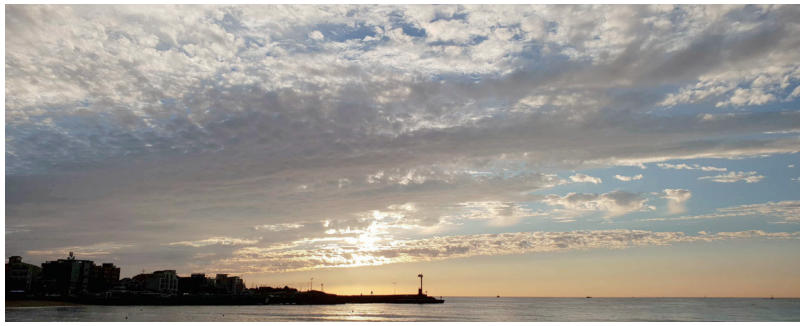
악천후로 경기 취소 시 환불 규정

물론입니다. 단! 경기가 시작되고 중단된 경우에는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규정상 우천 등으로 진행 중이던 경기가 5회 말 이전에 취소가 확정된다면 노게임 선언이 되어 정상적인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회 말 이후에 취소가 된다면 환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5회 말 이후로는 콜드게임이 선언되어 취소 이전까지의 기록이 인정되는 공식 경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날씨와 프로야구, 전혀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두 분야가 이렇게 서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또는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는 야구장! 야구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오늘 날씨를 한 번 찾아볼 시간을 가져본다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는 건강한 야구장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제보 서포터즈 제주 매력에 빠지다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계절의 흐름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제주도에 왔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했다. 그렇게 틈틈이 하늘을 카메라에 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내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삶의 일과가 되어갈때 쯤, 우연히 기상청 '날씨제보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보았다.



1분의 멈춤이 삶의 활력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제주도에서 삶을 시작하자 소소한 행복이 펼쳐졌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드넓고 푸른 하늘과 바다는 언제나 나에게 힐링이었고, 섬 특유의 강한 바람마저도 한없이 멋진 구름을 만들어 주었기에 마냥 좋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날씨를 즐기며, 삶에 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날씨제보 서포터즈'에 지원했다. 활동하면 할수록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내가 보고 느낀 날씨를 다른 사람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언제 어디서나 날씨제보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날씨 정보를 공유할 때마다 마치 내가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길을 걷다가 사진 찍고 짧은 몇 줄을 쓰는 시간,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다.

온 가족이 날씨제보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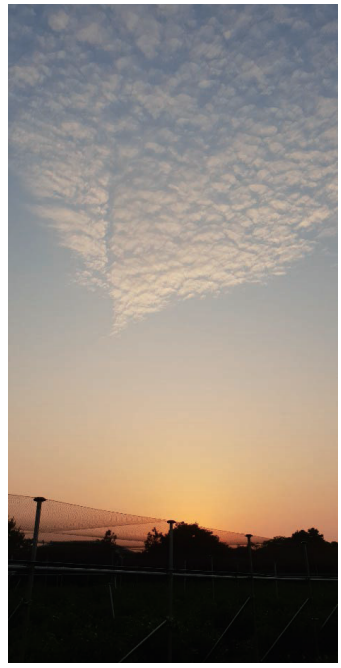
가족들은 나의 날씨제보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에는 몰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포터즈 활동에 점점 욕심이 나면서 멋진 하늘이 보이면 차를 세우는 횟수가 늘고, 더 나은 장면을 위해 몇 번을 다시 찍기도 하자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산부터 찾아야 하는데 휴대폰부터 들고 사진 찍고 있으니, 남편은 핀잔주기 일쑤였다. 그러다 활동 우수자에 몇 번씩 뽑히게 되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열심히 활동해서 상받은 거라고 얘기하자 나보다 더 좋아해 주고 이제는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멋진 하늘이 나타나면 먼저 사진 찍으라고 말해준다. 아이들이 하늘의 변화와 계절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유지은
제주 날씨제보 서포터즈





번개가 가져다준 깜짝 선물

1년 동안의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쉬움이 짙어질 때 쯤, 2018년 국민참여관측 날씨제보 우수제보자로 선정되었다. 2018년 6월 30일, 8개월 된 딸아이의 잠투정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새벽,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 치는 소리에 놀라서 우는 딸아이를 달래며 찍었던 번개 치는 영상이 우수 제보로 뽑힌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번개에 깜짝 놀랐고, 번개가 무수히 쏟아지는 제주 날씨에 또 한 번 놀랐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는 나를 보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내 모습에 더 놀랐던 그날의 한 컷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학교를 졸업한 후 받아본 적 없는 우수상과 상금에 설렘과 기쁨, 뿌듯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언제나 좋은 날씨

우리 가족의 삶에 궂은 날씨는 있어도 좋지 않은 날씨는 없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파도는 청보리 물결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좋았고, 햇볕 쨍쨍 타들어 갈 듯 한 날, 그늘 한 점 찾기 힘든 돌문화공원에서 갑자기 만난 소나기는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안개 자욱한 날 인적 없는 절물자연휴양림은 숲의 신비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보슬비가 내리는 날 굳이 비옷까지 입고 간 곶자왈은 깊은 흙 내음과 촉촉한 공기 속에 자연가 하나됨을 느끼기에 더 없이 좋았다. 제주 이주와 더불어 날씨제보서포터즈 활동은 서울에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를 자연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준 우리 가족의 큰 선물이 되었다.

나의 영원한 취미, 낚시!

많고 많은 취미생활 중 왜 낚시를 선택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군대를 전역하고 우연히 형을 따라 고흥에 있는 아주 큼지막한 저수지를 찾아갔다. 깨끗한 물에 주변은 온통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있는 풍경을 벗 삼아, 아무런 낚시 기초도 없이 던지면 무조건 고기가 나오는 줄만 알았던 그야말로 고기를 무시한 초보 낚시인의 첫 출조(낚시하러 나섬)인 셈이다.





조용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낚시도 과학이다

고급 낚싯대도 아니고 고가의 찌도 아닌 말 그대로 아주 허접한 낚싯대를 가지고 첫 붕어를 잡으면서 낚시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아마 지금까지도 낚시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손맛과 눈맛 때문일 것이다. 붕어가 몸부림칠 때 느끼는 손맛과, 환상적인 찌 올림을 향한 눈맛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 낚시를 계속하지 않았을까라는 답을 내놓는다.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낚시인과 까다롭지 않은 미끼 선택 등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덕분에 계속된 취미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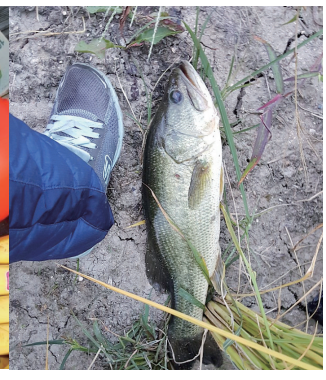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낚시 환경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다 보니 예전과는 다른 낚시 패턴이 생긴다. 우선 미끼의 변화가 돋보인다. 예전에는 지렁이 또는 떡밥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새우, 참붕어, 옥수수, 글루텐 떡밥 등 다양한 미끼와 계절에 따른 채비법을 사용해야 하는 과학적인 낚시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붕어만 낚시 대상이냐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저수지가 외래어종(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등)에 시름 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으로 토종 어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배스는 힘이 좋아 루어 낚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어종이다. 전국의 수많은 배스 낚시인들은 대물 배스를 잡기 위해 개인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열혈 낚시인들이다. 하지만 간혹 배스를 잡아서 다시 살려주거나 혹은 다른 저수지나 수로에 방생하는 일부 배스 낚시인들이 있다. 이건 불법행위이다. 블루길은 한동안 황소개구리가 호령하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먹는 엄청난 식

고사







욕과 번식력도 대단하여 한번 퍼지면 속수무책이며, 토종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잡아서 없애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눈맛, 손맛이 그리울 때는

무덥고 모기가 많은 여름철과 물이 어는 겨울철에는 낚시할 수 없으니 대리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실내낚시터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남쪽에는 즐길만한 시설이 거의 없으니 TV 낚시전문 채널을 보거나 낚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눈맛과 손맛을 대신 즐기기도 한다. 그래도 이런 낚시 프로그램 덕분에 낚시에 대한 취미생활 확산과 낚시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낚시를 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음식인데,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쓰레기는 꼭꼭 가지고 오길

낚시에 앞서 쓰레기를 먼저 청소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인근 주민들께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낚시를 한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먼 후세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누구든지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끝맺음으로 많은 낚시인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손맛, 눈맛은 만끽하시고 쓰레기는 대물을 만나는 마음으로 꼭 가지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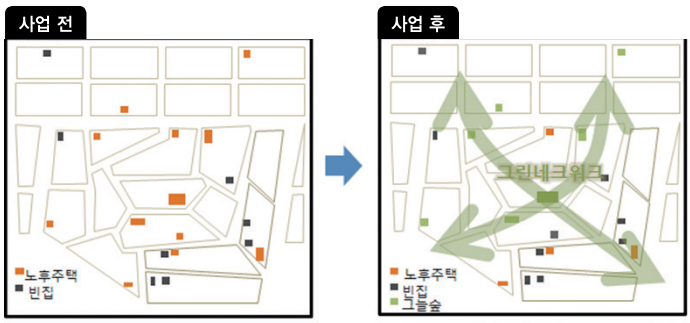






대구는 이렇게 '더워서 좋은 도시'로 변모해간다

대구는 덥기로 유명한 곳이다. 전국 어디를 가 봐도 대구만큼 덥기로 입소문이 난 곳은 없을 것이다. 내륙 지역이다 보니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더운 기후를 갖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살아오신 분들 사이에는 유난히 더운 이유에 대해 여러 지론들이 회자되고 있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폭염, 극복의 대상? 극기의 대상!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분지 지형이다 보니 분지 속 더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덥다.'이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적 요인 즉,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기에 대구에서 더위는 '극복(克復)' 대상이기보다는 '극기(克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련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대구의 여름 기온은 타 지자체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열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극기의 대상인 폭염은 대구시와 긴 애증의 관계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시민들의 '자아정체성'으로까지 발전했다. 최근 들어 대구시는 많은 폭염 대응 대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데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 결과 대구는 전국 최고의 자리를 최근 타 지자체에 넘겨주게 되었고, 일부 대구 시민들은 그간 애증의 관계였던 대구 더위가 더 이상 전국 최고가 아님을 못내 아쉬워하게 되었다.

대구시 폭염 주요 대책

대구시는 꾸준히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대구시 폭염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쿨루프 사업, 쿨링 포그 사업, 클린로드 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등이 있다.

우선 대구에서는 지붕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쿨루프 사업은 2016년부터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은행, 학교 등 공공시설에 보급·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밝은 도색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붕 표면온도는 10℃, 실내온도는 1~3℃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쿨링 포그 사업은 작은 물 입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2015년 대구시가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는 국내에는 매우 낯선 사업이었다. 적용되는 기술이 낯선 만큼 그 당시에는 분사되는 물의 수질 관련 보건상의 문제, 습기로 인한 진열 상품의 훼손 등의 문제로 한참 고민을 해야 했다.







클린로드 사업은 지하철 지하 공간에 축적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도로에 살수하는 사업으로 검은 아스팔트로 인해 달궈진 도로 표면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비산먼지까지 제거하는 복합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살수되는 구간은 9.1㎞에 이르며, 폭염이 지속될 시에는 필요에 따라 평소 4회보다 자주 살수한다.

대구시는 이미 1995년부터 대규모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대구시 폭염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식생이 폭염 저감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대구시의 대표적인 폭염 저감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1년까지 천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추진되는 식재사업은 현재 차로 가로수뿐만 아니라 대구 신천 등 지금까지 개방된 하천 둔치는 보다 녹음이 많은 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폭염에 대한 발상의 전환

대구시는 이외에도 폭염 피해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폭염을 지역의 천덕꾸러기로만 보지 않고 이제는 폭염을 대구만이 내세울 수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여 이를 활용한 '치맥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축제라던가 지금은 침체한 섬유산업에서 폭염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한다든지 "발상의 전환"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그냥 더운 도시에서 이제는 '더워서 좋은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폭염을 통해 대구시가 변모해가는 모습은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특정 한 분야만이 열심히 해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 '종합예술'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아시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 고위급 포럼 개최(5월 1일~5월 3일)

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 기상업무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확대와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중점협력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했다.



정책리더 역량강화 교육 운영(5월 9일~5월 10일)

기상청 국장, 소속기관장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책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5월 10일)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더욱 정확한 기상·기후·지진 관측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상청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개최(5월 13일)

기상청 출입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한 기상정책의 올바른 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Photo News



2019년 여름철 방재기간 업무시작 선언식(5월 15일)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동안 여름철 방재기상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방재기상업무 점검 및 위험기상 선제적 대응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5월 16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해 기상청–충청북도–진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활한 건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취재(5월 16일~5월 17일)

언론인들과 강원도 고성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현장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재해기상연구센터, 모바일기상관측 차량 등 현장 취재를 지원했다.



2019년 여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실시(5월 23일)

기상청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해 봄철 기상특성, 여름철 기상 및 태풍전망, 태풍정보 서비스 개선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6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희

아침마다 운동하는 길이 여름이 되니 더욱 풍성해졌어요! 늘 오늘만 같길



공광순

오월, 유난히 무덥던 날, 집 근처에 핀 붉디붉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화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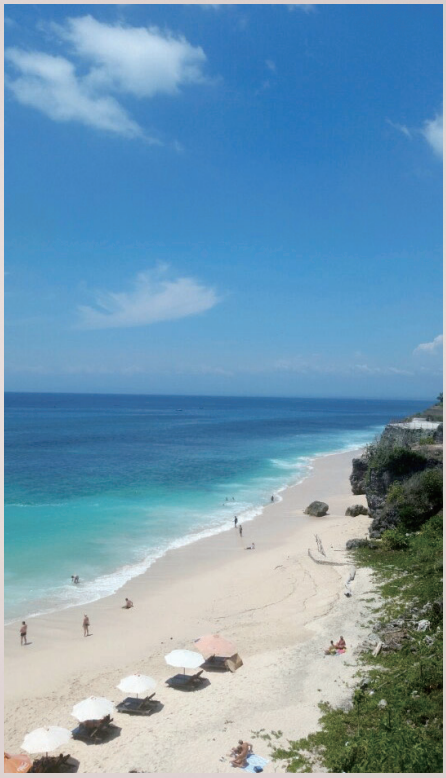
김다영

울산 태화강 봄꽃축제장에서 만난 양귀비꽃입니다. 양귀비의 꽃말은 위안, 위로라고 합니다. 올여름 더위에도 서로가 위로되었으면 좋겠네요.



원은정

봄이 무르익은 강촌의 문배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연둣빛 초록으로 가득 찬 자연이 마치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져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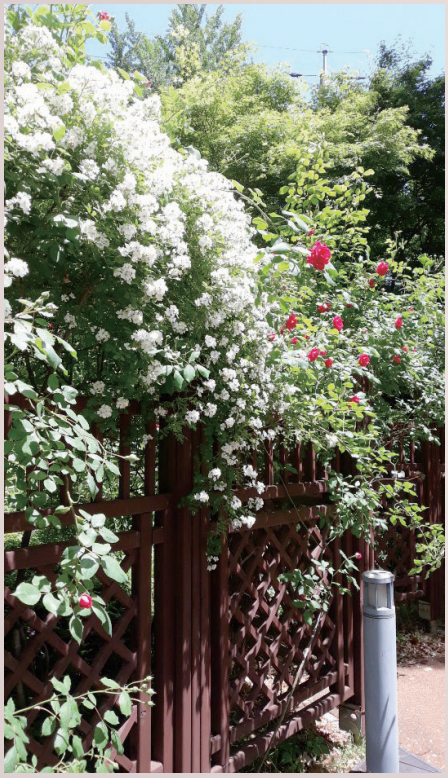
김미리돌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네요. 친구들과 다녀온 호주 바다 모습입니다



배명순

비가 그친뒤 드러난 쾌청한 파란 하늘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공기도 깨끗해 신록의 계절 5월임을 실감합니다.



강현숙

지구 온난화로 일찍 핀 장미와 5월의 찔레꽃이 함께 어우러져 활짝 피어 있네요. 꽃향기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고현진

서울의 선물 한강에서 만끽하는 노을과 분수쇼를 보며,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하루네요.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사진 : 최평화, 〈하늘에 떠다니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2019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 글 : 조아라

구름 아이스크림

열어놓은 창문으로
6월의 햇살의 쨍하고
퍼지고

낮잠 자는 아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땀방울 식히라고
하늘이 후후 불어 만든
구름 아이스크림

한입,
베어 물자
입안에 달큰하게 퍼지는
앳된 여름

쉿!
조용히 쏟아지는
울창한 나무 그림자 아래
푸름이 그윽해져 간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름과 가족을 찾지 못한 6·25 영웅들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6·25 전사자 유해가 어디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가족 친지분들 중 6·25 전사자가 계시다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 **제보전화** : 1577-5625 ▸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지급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 **방문채취** : 생업이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택방문 ▸ **전화신청** : **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킷트 발송(직접채취) ▸ **현역장병**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기념품, 위로휴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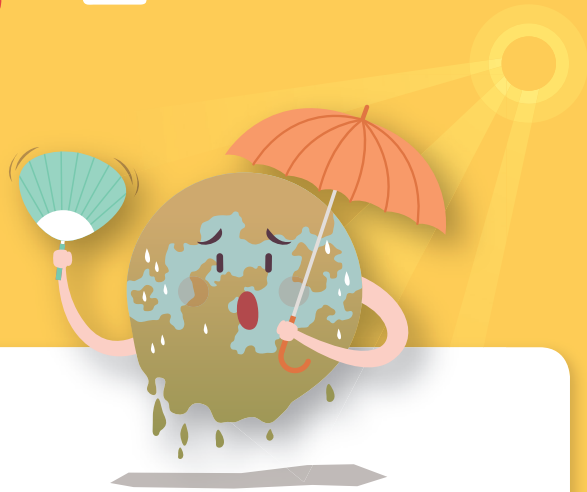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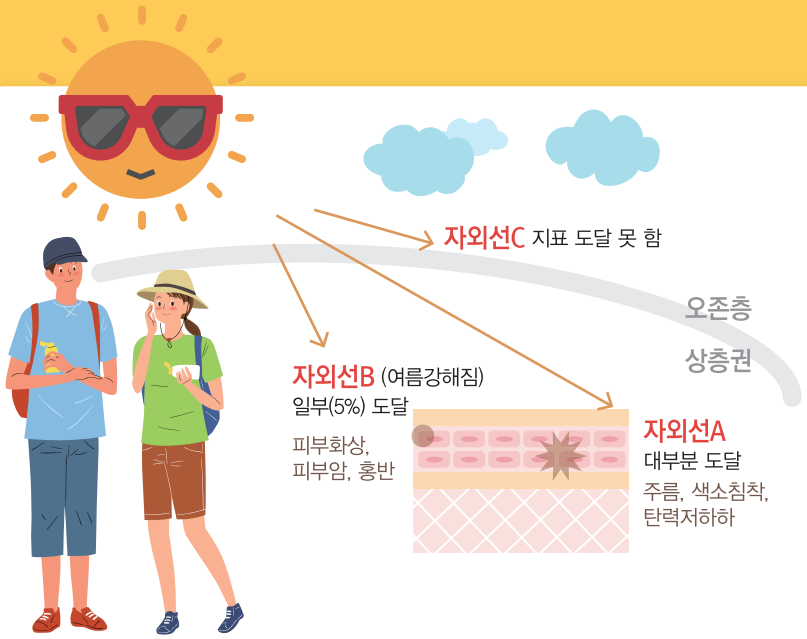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4계절 내내 "자외선지수"로 소중한 피부 지키세요!!!





자외선지수란?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을 지수화 한 것을 말합니다.

자외선지수 서비스

자외선지수는 3월에서 11월까지 매일 2회(06,18) 모레까지 예측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요령 자외선지수는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위험 11 이상	매우 높음 8 이상 10 이하	높음 6 이상 7 이하	보통3 이상 5 이하	낮음 2 이하
대응요령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가장 위험함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착용해야함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하고 실내나 그늘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착용해야함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햇볕에 노출 시 1~2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함 •한낮에는 그늘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착용 해야함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2~3시간 내에도 햇볕에 노출 시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모자, 선글라스 착용해야함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함	•햇볕 노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함

서비스 이용방법

www.kma.go.kr
기상청홈페이지 ▶ 생활과산업 ▶ 생활기상정보

m.kma.go.kr
모바일 웹페이지 ▶ 생활기상